

동아프리카, 메뚜기 떼 습격 와중에 더 큰 호우로 타격

2020년05월08일자

WMO발 기사

번역: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동아프리카 지역에 걸쳐 늦은 4월 말부터 이례적인 계절성 호우가 잦더니 결국 광범위 홍수로 발전하여 크나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가뜰이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간의 건강과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수 십 년 내 최악의 사막 **메뚜기 떼** 내습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말이다.

부룬디, 지부티,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소말리아, 우간다, 예멘 등이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소식에 따르면 260여 명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농작물과 가구, 각종 구조물들이 돌발홍수와 지반붕괴로 휩쓸리거나 묻혀 사라졌다.

하천 범람이 곳곳에서 발생했는데, 아프리카 최대의 내륙 물 저류지인 빅토리아호의 경우에도 제방 위로 물이 넘치는 일이 발생했다. 빅토리아호 유역위원회가 실시하고 NASA의 포세이돈 위성이 보충한 빅토리아호 수위에 관한 최근 관측에 따르면 이곳 수위가 60년 관측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수 예보에 따르면 오는 한주 동안 지역 대부분에 걸쳐 지속적인 중정도의 강수가 그리고 국지적으로 강한 호우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취약 지역지구는 돌발 홍수의 위험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수 강도는 5월 중순 경에는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 기상청들은 육상과 빅토리아호 자체 모두에 대해 예 경보를 적극 발표해 오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역 공동체 국가들은 WMO 주도의 지원사업을 통해 새롭게 강화된 날씨 정보 체계를 갖추으로써 일반 홍수나 돌발홍수와 같은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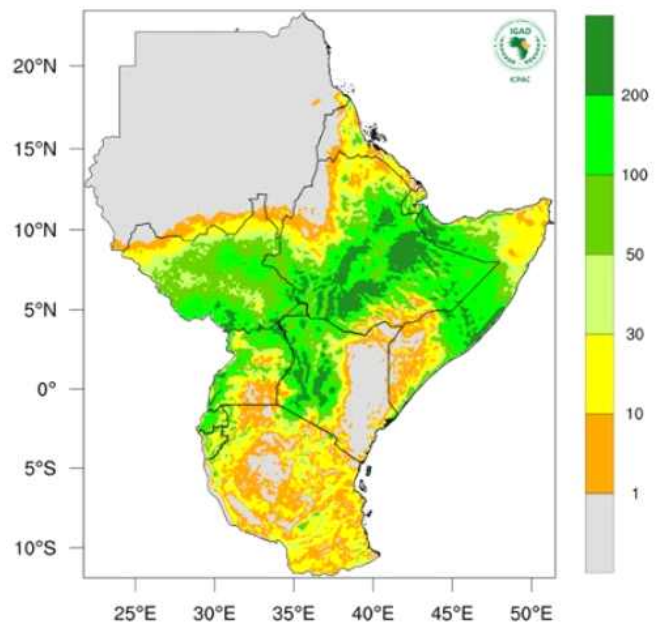
WMO의 동아프리카 위험기상예보프로그램과 HIGHWAY라 일컫는 High- Impact Weather Lake System 프로젝트 덕에,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는 빅토리아호에서 종사하는 어민들과 소형선박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향상된 형태의 해양예보 및 조기 경보를 발표하고 있고, 르완다는 키부호(Lake Kivu)에 대한 예보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조기경보 전파를 위해 케냐와 우간다 같은 경우는 지역 언어로 된 WhatsApp 메시지와 공동체 라디오를 이용하고 있으며, 색깔로 구분된 정보 깃발들을 이들 국가의 특정 지점에 꽂아 알리기도 하고 해안관리소들의 알림판에도 정보를 게시하기도 한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이 이례적 계절강수는 인도양의 평년을 웃도는 지속적 고 수온 때문이며, 이것이 아프리카 동부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나타난 강수에 유리한 대기 상태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아프리카 북동부(Greater Horn of Africa) 지역에 대한 계절 기후 전망에서 케냐 서부, 우간다 남서 및 동부가 예년보다 더 습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 르완다 동부와 남수단 서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기후 상황은 이 지역에서 돌발홍수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

지난 10월 11월 12월의 우기는 기록상 가장 습했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 전체에 걸쳐 대홍수가 발생하여 인프라와 생계에 큰 피해를 입혔다.

Rainfall Forecast (mm): 01-10 May 2020



사막 메뚜기 떼 습격



최신정보에서도 확인된다.

습한 기상조건은 사막 메뚜기 떼를 더욱 키우면서 지역 통제작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북동부(와 서남아시아)의 피해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사실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발표한 최근 소식에 게재되어 있으며, WMO 지역기후센터인 IGAD 기후예측 및 적응센터(ICPAC)가 내놓은

FAO의 Locust Hub 웹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문장을 인용하면 “기후와 연관된 충격과 분쟁과 침예한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은 이제는 사막 메뚜기로 인한 굶주림의 위협까지 직면하고 있다. 이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수준의

대재앙인 것이다.”

ICPAC이 밝힌 바에 따르면 동아프리카의 상황이 극히 심각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농경 목축 지역은 메뚜기 떼 내습으로 인해 가장 큰 수확위기에 처해있다. 갓 성충이 된 메뚜기들 대부분은 내습 지역인 에티오피아 남부, 서부, 북부에서 군집을 이루기 시작했다. 비는 4월에 강해졌고 지금이 마침 초기 식생 단계여서 대부분의 농경지역에서 자라는 작물의 생장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현 상황 뿐만 아니라 예보 또한 메뚜기 떼가 Horn of Africa 지역과 서남아시아 지역 내의 다른 영역까지 확산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FAO에 따르면, 통제작전을 펼쳐 메뚜기 개체수를 줄이기는 하였으나 또 다른 종이 발생하여 메뚜기 수가 더욱 늘어나 떼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일이 5월과 6월에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뚜기 떼는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내 북부지방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6월 중순이 되면 에리트레아와 수단에서도 새로운 메뚜기 떼를 맞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멘에게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메뚜기 떼들이 호우가 광범위하게 내린 지역 내에 알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부화하게 되면 또 다른 메뚜기 떼가 형성될 게 뻔하다.
